

경산 자인탁주합동제조장

현황 사진

위치 및 지형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축적 특성

연혁

활용방안

1. 현황 사진













[경 산 자 인 탁 주 합 동 제 조 장] 조 사 보 고 서



본 건물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자인탁주합동제조장 건물이다

1. 위치 및 지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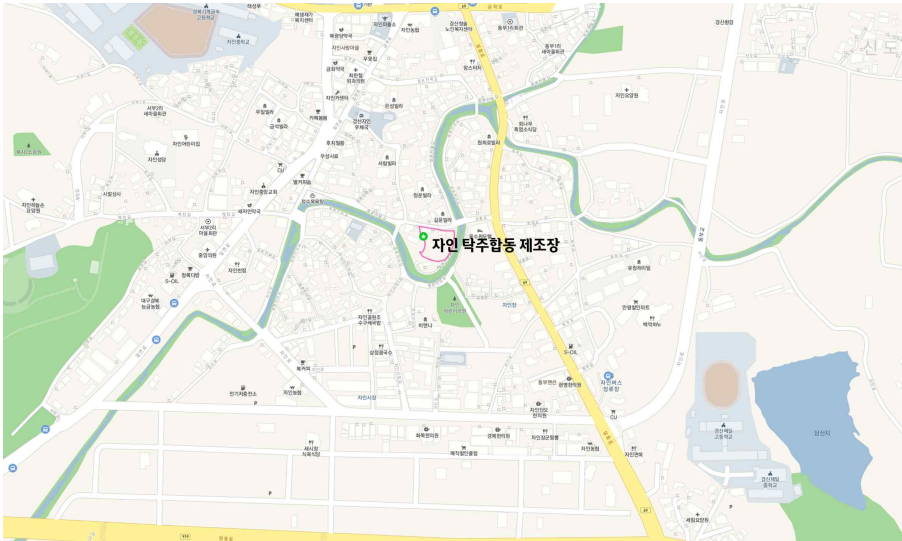
1) 경산시 홈페이지 지명 유래집 참조
(www.jwww.gbgs.go.kr)

자인탁주합동제조장 건물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131(중춘천북길 24)에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자인면은 신라시대 노사화현(奴斯火縣) 또는 기화현(其火縣)으로 호칭하였으나 신라 경덕왕 때 자인현으로 개칭하여 장산군에 속하였다. 자인을 인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자인현의 별칭이다. 고려 현종 때 경주부에 속하였다가 조선 인조 15년(1637)에 경주부로부터 분리 자인현으로 독립되었고 조선 숙종 때 현 소재지로 옮겼으며 1914년 행정 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경산군에 합병되고 자인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경산시의 정중앙에 있는 면이다. 원래 경주부의 속현이었으나 분리되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전까지 경산, 하양, 자인 중에서 자인군의 중심을 맡은 곳이었으며 2020년 1월 1일 압량면이 압량읍으로 승격되면서 경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이 되었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 파노라마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위치도

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물은 경산자인우체국 옆 도로를 따라 약 160m 이동한 후, 갈림길에서 좌회전하여 20m 직진하면 오른쪽에 있다. 현재 사무실 겸 판매장으로 사용한 앞쪽 건물만 남아있다.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건물은 1971년 경산주조 자인지점과 자인양조장 통합하여 자인탁주합동제조장 설립된 제조장 건물이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근대에 설립된 마을 양조장 중 하나이다. 근대 소도시 또는 농촌의 대표적 산업 시설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강한 시설이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경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속한 근대 양조장으로서, 지역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생활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인 주조장이 철거되면서 근대기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전면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외부

3. 건축적 특성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의 현황은 현재 사무실 겸 판매장으로 사용한 앞쪽 건물만 남아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65.1㎡, 주택 50.0㎡, 창고 34.1㎡, 창고 12.1㎡이다. 2006년 철거된 주조장은 210.2㎡였다. 남북으로 길게 있었던 주조장은 북측의 골목길에 면해 사무실을 중앙에 두었다. 서쪽으로는 숙직실, 동쪽으로는 판매장, 사무실 남쪽으로는 작업실, 원료 창고, 국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 기초 위에 목조 심벽으로 구성하여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사무실과 판매장에는 미서기 창을 설치하였다. 국실은 벽을 이중벽으로 두껍게 만들고, 벽 중간 상부는 비닐판 벽으로 마감하였다. 바닥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각 실의 천장은 각재의 살대에 널판재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과 일식 기와, 골슬레이트를 혼용하여 올렸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_내부



자인탁주합동제조장_내부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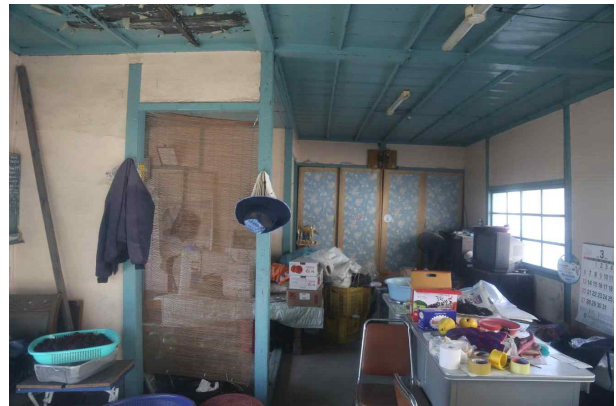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외부

4. 연혁

자인 탁주 합동제조장의 전신은 경산주조 자인지점이다. ‘경산 안부자’로 알려진 고 안병규가 1928년 지금의 자인탁주합동제조장 용지를 매입하여 1930년 경산주조 자인지점을 열었다. 이후 경산주조 자인지점은 1950년 즈음 황하탁이 자인면 서부리에 세운 자인양조장과 1971년에 통합하였다. 통합과 함께 이름을 자인탁주합동제조장으로 변경하였다. 사업장은 경산주조 자인지점의 터를 활용하였는데, 약 1,983㎡이었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의 전성기는 1970년대로 당시 종업원은 15명이었다고 한다. 탁주는 하루에 20ℓ 짜리 1말을 200여 통 판매하였으며, 장날에는 400말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라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점점 쇠락하였고, 결국 2006년 주조장이 철거되었다. 철거 당시 문화재청에서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을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 근대 문화유산 20건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상태였는데, 소유주의 거부와 시설 훼손으로 문화재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사무실 공간 내부



자인탁주합동제조장_사무실 공간 내부

5. 활용방안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근대에 설립된 마을 양조장 중 하나이다. 근대 소도시 또는 농촌의 대표적 산업시설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강한 시설이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경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속한 근대 양조장으로서, 지역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생활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주조장 운영을 통해 당시 막걸리 주조 기술과 방식, 제조과정에서부터 판매 및 배달까지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은 당시 주류문화는 물론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공간이다. 자인탁주합동제조장은 생활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록 개요서

문화재명	경산 자인탁주합동제조장
문화재지정별	비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중촌천북길 24[동부리 131]
연면적	대지 161.3㎡ / 건축 127.2㎡
건물 수량	4동(사무실, 주택, 창고 2동)
분류	산업시설
주요 구조	목조
주용도	창고 및 주조장
주요외장재	목조
지붕재	슬레이트 및 일식기와
창호	목재 창호
건립연도	1930년대
활용방안	주정 카페, 예술 공방 등 문화 예술 공간 및 주조 체험공간



